



교육·의료·문화·공원·교통...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해소

■ 시민 일상 행복한 도시

부산시는 15분 내 교육·의료·문화·공원·교통 등 지역별로 어떤 시설이 불균형한지를 빈틈 없이 파악해 비어있는 지역에는 이들 인프라를 촘촘히 공급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를 다양하게 구성, 구축하는 것이다. 청년 스타트업 플랫폼, 신중년을 위한 복합타운, 역세권 주변 콤팩트타운 등이다.



지역에 따른 문화·복지·생활편의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을 더한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복합용도 콤팩트타운을 조성하고 공공건물(학교 등)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보행 중심 도시 부산

■ 그린스마트 도시

‘15분 도시’ 부산은 그린스마트 도시이다. 부산시는 15분 도시에 걸맞은 그린스마트 도시 실현으로 지역의 가치와 시민 삶의 풍요를 높인다. 이를 위해 스마트 교통체계를 조성한다. 부산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CT·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공유 그린주차장 등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화·코로나19 시대 의료 취약계층의 모빌리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진료 차량 인프라 개발, 그린 인프라 구축으로 재해재난 안전관리 등 ‘스마트 헬스케어·스마트 안전’ 도시 부산을 만든다. 보행자 중심의 도보 환경, 보행 약자 이동권 확보 등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부산을 ‘보행 중심 도시’로 탈바꿈시킨다.

첨단기술 적용, 탄소 중립형 도시 공공서비스 저탄소 전환기반 확충

■ 탄소 중립 전환도시



첨단기술을 적용한 탄소 중립형 도시 전환, 공공서비스의 저탄소 전환기반 확충이 목표이다. 급격한 기후변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공장 시범 운영 및 공공시설 선도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오래되고 낡은 공공건물은 친환경으로 바꾸고 친환경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에 나선다.

부산 갈맷길 ‘1,000리’로 늘리고 걷기 좋은 전국 최고 ‘명품길’로

■ 부산 갈맷길 시즌2

부산시는 ‘15분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갈맷길을 정비하고 확장한다. ‘부산 갈맷길 시즌2’이다.

부산 갈맷길 시즌2는 기존 700리(275km) 갈맷길은 업그레이드하고 도심 속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300리(120km) 구간을 새로 만들어 ‘1,000리 갈맷길’ 시대를 여는 것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신규 갈맷길 조성하고 기존 갈맷길 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갈맷길을 모두 연결하면 부산의 다양한 명소를 15분 안에 편리하게 걷고 관광할 수 있다.

기존 갈맷길에 새로 연결하는 도심 갈맷길은 부산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았다. 거칠산국 역사길(동래읍성~좌수영성) 10km, 오감만족 행복길(서동 미로시장~회동수원지) 4km, 철도 옛 향수길(옛 해운대역~송정역) 9km, 아세안 자연생태길(도시철도 해운대역~폭포사) 8km, 오후 맛 기행길(도시철도 경성대·부경대역~민락수변공원) 6km, 근대 산업유산길(도시철도 서면역~좌천동 가구거리) 7km 등 15개 코스다.

갈맷길의 관광 상품화도 추진한다. 코레일과 함께 갈맷길 관광열차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안심관광 상품화와 연계한 홍보 프로모션도 선보인



갈맷길 이기대 구간을 걷는 시민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다.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갈맷길 투어 라운지도 조성한다. 투어 라운지는 갈맷길 안내, 완보 인증서 배부, 코스별 관광안내소 연결 등 갈맷길 투어의 허브 역할을 한다.

보행 안전 인프라 확충, 시민 걷기 더 좋게

갈맷길 정비·확장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보행문화도 개선한다. ‘15분 도시’는 편리성뿐만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다.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차량 속도 저감 시설 설치, 일방통행 지정, 보도 신설 등을 추진한다. 고지대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보행환경도 좋아진다. 부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단단속 카메라(426개소)와 신호기(276개소)를 2022년까지 단

■ 부산 갈맷길 신규 조성 구간

스토리텔링 주제	길이	구간
거칠산국 역사길	10km	동래읍성~좌수영성
오감만족 행복길	4km	서동 미로시장~회동수원지
동래 역사문화 탐방길	6km	도시철도 수안역~서동 미로시장
수영역사문화이야기길	7km	부산시립미술관~신세계센텀백화점
철도 옛 향수길	9km	옛 해운대역~송정역(동해남부선)
아세안 자연생태길	8km	도시철도 해운대역~폭포사
오후 맛 기행길	6km	도시철도 경성대·부경대역~민락수변공원
평화와청년문화의길	6km	도시철도 경성대·부경대역~동명불원
근대 산업유산길	7km	도시철도 서면역~좌천동 가구거리
과거와 미래산업길	6km	부산진시장~감만창의문화촌
피란역사문화길	5km	영도다리~40계단문화관
삶의생각길	5km	자갈치시장~부산대학병원
감성 예술길	14km	다대포 연안~부산현대미술관
낙동강 생태공원길	19km	도시철도 강서구청역~하단역
체험문화의 길	8km	도시철도 구명역~장미원

계별로 확충한다. 보도턱을 낮추고 점자블록은 정비한다. 광안대교를 개방해 시민이 함께 걷는 ‘2021년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 축제’는 지역 대표 걷기관광 상품으로 키운다. 부산시는 보행교로 조성하고 있는 수영강 휴먼브릿지와 낙동강 금빛 노을 브릿지, 감동나루길 리버 워크가 완공되면 갈맷길과 연계할 계획이다.